

사설

부불회의 시민대상 '환영'

부산불교신도회가 1월 3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교화·기획·조직사업의 2000년도 계획을 확정하면서 불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환경 및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시민대상을 제정·시상하기로 하였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환경보존과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불교의 보살정신을 함양하여 청정한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사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불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다.

불교는 인간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하여 아름다운 환경, 화목한 사회를 구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보살은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환경과 사회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보시행이며, 보살정신의 실천이다. 이러한 살아 있는 보살을 찾아 자랑스런 시민으로 그 공덕을 찬탄하고 위로하며, 모든 시민이 그 뜻과 행동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불국정토의 실현은 앞당겨질 것이다.

부산불교신도회의 시민대상 제정을

계기로 각 지역의 불교단체는 물론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신도회나 종단 또는 종단협이 주관하여 환경운동과 사회정화 및 교육·문화·예술 등 각 부분별 공헌을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을 제정 시상하여 불교의 대사회적 입장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러나 현재 교단과 교직자 내지 불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소위 불교의 주역들이 과연 불·보살의 자비정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사회에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 위치에서 모든 불자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불교신도회에 기대하고 싶은 것은 말만 앞세우는 불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단이나 불교단체의 일각에서 사회봉사나 계몽의 사회화 등 많은 대사회적 불사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면 부끄러운 일이 없지 않다. 부산불교신도회의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며, 교계의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전자 조작 생물체 '우려'

지난 달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1백30여개국 대표들이 제안된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유전자 조작 생물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세계적 규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GMO의 유해가능성이 인정되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받아 들인다.

GMO 가운데서도 우선 최우선 문제는 콩 옥수수 감자 등 농산물이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10년만에 수출농산물의 95%가 유전자 변형(gene-altered)작물이 될 것이라 내다 본다. 농산물 자급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식탁은 이미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그 2차 식품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가을 있었던 두 부파동이 한 예다. 유전자 변형작물이 유해한 것이라면 이처럼 심각한 문제도 없다.

미국 캐나다 등 농산물 주요수출국은 지금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어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중한 실험과정이 배제된, 그래서 어떤 생태적 재앙과 건강상 위험을 가져올지 모를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소비자들이 달가워

할리 없다. 더구나 지난 해 영국에서는 유전자 변형 감자가 쥐의 장기를 위축시킨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고 그 얼마 전 미국에서도 변형된 옥수수 꽃가루가 나비의 애벌레를 죽인다는 불길한 실험결과들이 나와 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인간이 과연 자연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해 두는 것인가에 있다. 생명의 진화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자연스런 생명체 진화를 막아 결국 인류에게도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그만큼 전체생명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한다. 한포기의 잡초에도 기생하는 수많은 벌레와 그 꽃을 찾는 나비가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이해와 고려없이 저지르는 일은 위험한 불장난이기 십상이다. 그 근원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지적하신 인간의 무지와 오만을 발견한다.

불교적 세계관. 중종무진의 연기법은 장엄한 생명상에 대한 의결과 존엄을 일러준다. 유전자 조작은 자칫 연기의 바탕인 업(業)의 질서를 파괴, 무서운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제 어떤 제동으로도 멈출 수 없었던 과학의 질주에 대한 경고를 한번 울린 셈인데 불교계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와 대응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본말사 정보 통합관리

정보관리 논쟁사례

본사급 사찰의 정보박물관에서 말사의 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말사의 신도, 지역주민, 관할관청 등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월인석보>(보물 745호)를 소장한 흥천 수타사, 금동삼존불(409호)을 봉안한 충남 당진 영탑사, 태화 2점을 이전한 원주 구룡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보를 소장한 사찰들은 "정책은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신도와 지역 주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유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중요 불교문화재를 엮어 관광사업을 구상하는 관할 관청 역시 정보 이전을 반대한다. 당초 전국에 흩어진 국보급 불교문화재의 훼손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짓기 시작한 정보박물관의 '정보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도난·훼손 효과적 예방" "재정·인력 확보 급선무"

일철(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전국 말사에 소재한 정보들을 정보박물관으로 이전, 통합관리 하는 것은 정보 문화재 관련 조계종의 정책이다. 이 제도는 깊은 산중에 흩어져 있는 정보문화재에 대한 훼손과 절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서 밝혀졌듯이 87년 이후 전국 사찰에서 도난당한 정보문화재의 수는 4백 53점에 이른다. 정보들이 이토록 수난을 당하는 것은 무방비한 사찰로서는 문화재 절도범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 외에도 '정보박물관'은 불교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박물관의 수장고에 묻혀 있는 불교 유물을 대여할 수도, 교계 전시를 기획할 수도 있다. '벽'이 갈기 때문에 교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본사급 사찰에는 문화부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정보 박물관은 그 역할을 도맡을 수 있으며, 지역 불교문화회 활성화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보문화재 이전을 놓고 본·말사, 신도, 지역 주민, 관할 관청 사이에 이견이 생기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갈등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다. 정보 문화재를 무조건 가져가게 아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지역 사찰의 보안 시스템을 우선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각 정보박물관에 보내고 있다. 실록 본사 정보박물관으로 이전하더라도, 그것은 '대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역 사찰에서 도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보문화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재구(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박물관의 개관 계획을 세울 때는 유물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게 이 계통의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정보박물관은 그런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말사라는 직계만 염두했을 뿐 성보가 지역의 유산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본사 단위로 박물관을 지어 말사의 정보까지도 통합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만 믿고 추진한 탓도 한 몫했다.

또 문화재 이전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유물을 포장해 특수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 작업실에서 포장을 뜬 유물을 청결히 하고 보수·소독해야 한다. 유물의 실측과 촬영 등 기초조사는 말할 것도 없다. 불교유물은 종이류 직물류, 목공예류 등이 많은데, 곰팡이와 균을 박멸하지 않으면 전시나 격납 후 대량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보박물관 가운데 이같은 이전 절차를 밟은 곳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문화재 전문가들은 정보 박물관과 불교문화재 통합관리를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사찰 특성을 살린 것도 아니고, 사찰 재정에 맞는 규모도 아니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다. 더욱이 말사의 적극적인 조력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박물관은 박물관 관리를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또 전담 부서나 전문인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또 유물 확보를 위해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가져오기 식'이 아닌 '대여'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박물관이 시기에 성격에 맞는 교계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정 기간 정보를 빌리는 방식이 감정의 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흥천군 수타사는 교구본사 월정사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다. 수타사에 소장된 <월인석보>(보물 745호)를 월정사정보박물관에 이전·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수타사는 영서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월인석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들을 소장하고 있는 말사다. 그런데 본사에서 '정보문화재 통합관리'라는 정책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정보문화재를 차례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에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들은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이다. 그들은 "수타사의 표상인 <월인석보>를 비롯 앞으로 범종과 태화 등 불교유물이 줄이어 옮겨질 경우 수타사는 대들보가 빠지는 것과 같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관할 관청에서도 반대했다.

흥천군과 수타사는 군 차원의 정보 박물관을 지어 <월인석보>를 되찾아 오고 지역 정보문화재도 함께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세웠다. 또 이춘삼 흥천군수 등은 월정사를 방문해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월정사와 수타사의 갈등은 '일정 기간 대여' '박물관 건립' 등 모법적인 선례를 남겼다. 또 금동삼존불(보물 409호)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수덕사와 충남 당진군 영탑사도 말사에서 그대로 소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원주사 구룡사의 경우 지역 주민과 신도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들은 "협의로 없이 불화 2점을 이윤의식도 불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사 정보 박물관으로 이전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전된 불화 때문에 사찰과 지역 주민, 신도들이 지금도 반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청이 최근 1천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의 1, 2, 3 위가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팔만대장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국사나 석굴암, 팔만대장경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또 문화재적 가치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보종 하나라는 사실을 또한 이번 일깨워준 조사라 생각한다.



이 경 속 (취재 1부 부장)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고 수학적행으로도 가장 많이 가서 보는 문화재란 점도 이번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 선정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정보들을 어 떤 불자가 혹은 국민이 누구에게 그 문화재적 가치와 불교적인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에는 각각 매년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지만 안내관에 쓰여있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지고한 불교적인 뜻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는지 의문이다.

KBS 1-TV는 1월 19일 밤 '선무도'를 기획 방영했는데 불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선무도의 본산 골굴사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수련하는 과정을 흥미있게 보여주었다. 선무도 수련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술 뿐 아니라 반야심경도 외우게 하고 있어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취재진이 반야심경을 쓰고 있는 한 학생에게 <반야심경>의 뜻이 무어나고 문자야 무말도 못했다. 물론 아이들이 <반야심경>의 심오한 뜻을 몇 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 외우게 하기보다는 그 뜻을 간단하게라도 쉬운 비유로 알려주면서 외우게 하면 더 뜻있는 일이 아닐까 해 아쉬웠다.

올 가을에는 국제적 국가행사인 아셈회의가 열리고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이다. 또 후년은 2002년 월드컵이 열린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올 것이고 우리 전통문화로 보여줄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결국 사찰이고 불교문화재들일 것이다. 제발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조금이라도 맛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불교의 진수를 쉽고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좋아하는 문화재

목.소.리

사찰 바로앞 아파트 건설 중단해야

원각사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의 산자락에서 7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고즈넉히 자리잡고 있는 전통사찰이다. 순치 6년에 조성돼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보살좌상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각사는 지금 물지각한 건설업자들의 횡포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잘 코앞에 14층 362세대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전통사찰 환경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 경계선과 참배와 기도의 장소인 원통전과 불과 30m, 객실과는 20m, 주지실과 상주대중 거처와는 35m, 신도들이 머무는 요사채와는 25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오는 5월 입주자가 된

다면 목탁 등을 사용한 의식 집행에 주민들이 민원 분쟁을 할 소지가 있으며, 사찰 앞에 조성되는 주차장 때문에 24시간 소음과 매연으로 사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아파트 건립은 애초 우리 사찰과는 한마디 상의없이 택지 매입과 공사허가 등을 기만적으로 시작했다. 여러차례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영남건설 관계자를 찾아 다니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구미시와는 사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현장을 합동조사하고, 원천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재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해(구미 원각사 주지)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0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법교의세계	허일범교수(진각대)	법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화요일	법화경	박종교수(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키암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서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변경합람사진 3매	2000년 2월 7일~ 2000년 3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30명)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 포교사 취득자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3. 개강일시 : 2000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732-1206 ~ 8 /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200명

1. 교과목

1년 교과목 불교개론, 선종사상, 불교미술, 말교사상, 포교방법론,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법사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의처
☎732-1206~8 / FAX 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3월 4일(토) 오후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준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정업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임종·매장·화장(의식) · 제공(의식) 및 영혼전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사 취득자 ③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서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변경합람사진 3매	2000년 2월 7일(월)~ 2000년 3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학금 : 일십만원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 ~ 8/FAX 732-1207 (10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